윤장현 광주시장 인적 쇄신 주목

비서관 사직서 수리 … '사의' 정무라인 4명 교체 폭 관심

윤장현 광주시장 인척인 김모 전 정책자문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무 라인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윤 시장이 이번 주 내에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용수 비서실장, 노성경 정무특보,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김용환 비서관 등 5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자문관의 동생인 김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사퇴서가 수리됐다.

윤 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부통신망에 "광주시정과 우리 직원들을 지켜내고 잘못이 없는 공직자가 처벌받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적 쇄신을 신속히 단행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일 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인척 비리로 시청이 두 차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민선 6기 들어 최대의 위기를 맞자 사과와 함께 인적쇄신 의사를 밝혔다.

윤 시장은 이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함을 내비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측근들의 사표는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대대적인 정무 라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셀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과 호흡할 수 있는 인사들로 새로운 정무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윤 시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시장이 인적 쇄신을 언급한 직후 정무 라인들은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인적 쇄신을 염두에 뒀으며, 연휴 내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무 라인들의 능력과 인물평을 청취함은 물론 4명의 사의를 일괄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처리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성격상 인사 조치를 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분야는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정이 위기를 맞은 만큼 조건 없이 전원 교체해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대신 정무 라인들이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면 고유의 전문성을 살려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격퇴한 명량대첩 당시 조선 수군의 배후기지였던 '해남 전라우수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35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전했다. 해남 전라우수영은 조선시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으로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앞에 있는 섬인 '양도'가 명량해협(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막아줘 천혜의 요새로 평가받는다. 해남 전라우수영 북문지와 망해루 사이 잔존 성벽(왼쪽), 오른쪽은 남문과 서문 사이 잔존 성벽. 〈문화재청 제공〉

명량대첩 배후기지 해남 전라우수영 사적 지정

문화재청, 원문도 사적 지정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격퇴한 명량대첩 당시 조선 수군의 배후기지였던 '해남 전라우수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35호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남 해남 전라우수영은 조선시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本營)으로,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앞에 있는 섬인 '양도'(洋島)가 명량해협(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막아줘 천혜의 요새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전라우수영에서 동쪽으로 7㎞ 떨어진 지점에 있는 원문(轅門)도 함께 사적으로 지정됐다. 원문은 적이 육지로부터 본영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해남 전라우수영은 목포에 있던 전라수영이 1440년(세종 22)에 이전해 오면서 조성됐다.

1479년(성종 10) 오늘날 여수인 순천부 내례포(內禮浦)에 전라좌수영이 만들어지면서 전라우수영이 됐고,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직전인 1895년까지 지속했다.

전라우수영을 둘러싸고 있는 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6세기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은 바깥쪽은 돌로 쌓고 안쪽은 흙을 다져 올린 내탁식(內托式) 석성으로, 길이는 약 1.8㎞이며 현재는 3분의 1 정도만 흔적이 남아 있다.

성벽에는 옹성(甕城·성문 앞에 설치하는 항아리 모양 시설물)과 치성(雉城·돌출된 형태의 성), 여장(女墻·성벽 위에 쌓는 낮은 담), 수구문 등의 방어시설이 있고, 성내에는 십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관아 건물, 창고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남 전라우수영은 조선 수군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성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확정

부지확보·주민설득 과제

롯데와 이전협상 착수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하면서 그동안 부지 논란으로 지연됐던 사드 배치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성주골프장은 민간소유지인 만큼, 소유권 이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성주골프장 부지 가격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경우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여인홍 전 차관

제17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에 여인홍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

신임 여인홍 사장은 부산 태생으로 1983년 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장,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농식품부 유통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했다.

농업계에서 '현장통'으로 알려진 여 사장은 위기 대응 능력과 함께 농수산식품 유통·수출 업무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춰 aT 업무 추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노벨상 시즌 … 7일 평화상·13일 문학상 발표

3일 의학·생리학상 선정을 시작으로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첫 번째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7일에는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이어 10일에는 경제학 부분 수상자를 13일에는 문학상을 발표한다. 당초 문학상은 10월 첫째 주 목요일 발표하는 관례에 따라 6일 공표가 예측됐지만, 올해는 예정보다 일주일 늦춰진 13일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노벨상의 꽃으로 평가받는 문학상과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이에게 수상하는 평화상을 누가 수상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군으로 언급돼온 고은 시인의 수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최대 베팅사이트 래드브로크스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래드브로크스의 집계에 따르면 하루키의 배당률은 5대 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5대 1'은 1달러를 베팅할 때 5달러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수상 가능성이 높아 배당액이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2위에 오른 이는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다. 배당률 6대 1을 기록한 아도니스는 시리아 출신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1956년 레바논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후보에 단골로 오를 만큼 인지도가 높다.

이밖에 미국작가 필립 로스가 배당률 7대 1로 3위, 케냐 출신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가 10대 1로 뒤를 이었다. 필립 로스는 현대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응구기 와 시옹오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해 현재 미국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의 고은 시인은 33대 1 배당률로 13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베팅업체의 예상이 빗나간 경우도 적지 않았던 터라 뜻밖의 수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7일 발표하는 노벨상 평화상은 역대 최다 후보들이 올라 경쟁이 뜨겁다. 시리아 내전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인명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하얀 헬멧', 지구온난화 대응에 뜻을 모은 파리기후협정 등 누가 받아도 노벨상 권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개인 228명과 단체 148곳이 경쟁해 여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하얀 헬멧을 쓰고 활동하는 시리아 민방위대 '하얀 헬멧(White Helmets)'은 5년 간 이어진 내전의 참상을 알리고 인명 구조에 힘을 쏟고 있다.

내전의 참혹함을 알린 '알레포 꼬마' 올란 다크니시(5)를 구한 것도 하얀 헬멧 대원이었다.

지난해 말 타결된 파리기후협정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인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데서 수상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내전 중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여성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산부인과 의사 드니 무퀘게와 시리아 난민구호에 앞장섰던 그리스 섬 주민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합뉴스

노벨 생리의학상 日 오스미 요시노리 선정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본 학자인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사진)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요시노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을 연구했다.

이로써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역대 25번째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다.

한편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리학과 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다.

/연합뉴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을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1평 ▶ 감정가 21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좋음 ▶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좋음 ▶ 감정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좋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급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담환영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345KiloVolt 장성광산변전소 공모형 입지선정」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에서는 변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시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전 최초로 주민공모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전소 건설사업 추진계획 및 공모제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345kV 장성광산변전소 건설사업 (준공목표 : '21.04)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원
다. 설비개요

변 전 소	○한전표준 345kV급 옥외형(정지면적 : 21,840㎡, 260×84m)
송전선로	○ 장성광산변전소 계통연결을 위한 345kV 및 154kV 송전선로 4회선 연결

라. 총사업비 : 345억원
마.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주민자치센터(본량동, 임곡동, 동화면, 삼계면) 및 지자체(광산구청, 장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나. 공람기간 : 10. 5 ~ 10. 14
3. 공청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구 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 시	'16. 10. 13(목) 15:00	'16. 10. 14(금) 11:00
장 소	임곡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삼계농협 예식장 2층 회의실

나. 참석대상 : 광산구, 장성군 지역주민 및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4.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042-717-4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